

# “철거비만 2억원”...도심 속 흥물된 폐주유소

광주, 5년 새 주유소 30곳 문 닫아...전남도 감소세  
‘철거비 부담·매매 실종’ 악순환 반복에 장기 방지

광주·전남 도심 곳곳에 문을 닫은 폐 주유소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화재·환경오염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하지만 철거 비용 부담과 낮은 사업성 탓에 매매조차 쉽지 않아 사실상 ‘도심 흥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정비 지원과 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68곳에 달했던 광주 지역의 주유소 수는 2021년 261곳, 2022년 255곳, 2023년 243곳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까지도 238곳 수준에 머물며 장기적인 감소세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전남 지역 역시 2020년 871곳이었던 주유소는 2021년 854곳, 2022년 852곳, 2023년 849곳에 이어 최근 들어서도 줄곧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무려 67곳의 주유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식 폐업 처리를 하지 못한 채 휴업이나 영업 정지 상태로 간판만 걸려둔 장기 방

치 주유소까지 합산하면 그 실질적인 규모는 수백여 곳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날 찾은 북구 신안동 대로변의 한 폐 주유소는 도심 속 방치된 흥물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때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졌을 주유 공간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간판 틈새에는 먼지와 폐기물이 뒤엉켜 있었다. 인근 상인들은 “밤이면 청소년들이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 현재는 철조망으로 출입을 막아둔 상태다”며 “이렇게 방치된 지 벌써 수년째인데 상권도 많이 죽은 터라 보러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심 한 가운데 흥물로 남은 폐 주유소의 가장 큰 문제는 철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유소 부지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토양 정화 작업과 지하 저장 탱크 철거가 필수다. 업계에서는 중형급 주유소 기준 철거와 토양 복원 비용만 최소 1억~2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양오염이 심할 경우 비용은 수 억원대로 뛰기도 한다. 이 때문에 폐업 후에도 철거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한 폐주유소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상권 쇠퇴까지 겹치면서 매매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과거에는 주유소 부지가 물류시설이나 상업시설 용도로 재개발됐지만 최근에는 활용 수요가 줄면서 거래 자체가 뜸한 곳도 많다. 특히 대로변이 아닌 노후 상권의 경우 활용 가치가 낮아 투자자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철거비 부담→방치 장기화→자산가치 하락→매매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유소의 연쇄적 몰락은 대형 마트 주유소 및 알뜰주유소 도입에 따른 과도한

가격 경쟁 심화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영 주유소의 한계 상황 직면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적·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폐주유소는 단순한 도시 미관 저해를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

전문가들은 폐주유소 문제가 단순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 차원의 도시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기 방

치 시 토양오염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토양오염 책임 원칙에 따라 대부분 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수억원대 정화 비용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폐업 이후 장기간 방치된 시설은 소유권 문제까지 얽히면서 행정 개입도 쉽지 않다.

도심 한복판에 남겨진 폐주유소는 단순한 ‘빈 건물’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 변화와 도시 쇠퇴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차 시대 전환 속에서 기존 주유 인프라에 대한 재정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폐주유소 증가는 단순 폐업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차 확산과 수익성 악화가 맞물린 구조적 현상”이라며 “철거와 토양 정화 비용 부담을 업주 개인에게만 맡겨선 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와 정화 비용 지원, 부지 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지역 에너지 생태계 육성 중진공·한전·켄텍 등 맞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가운데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일 전남에너지산업협회,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과 에너지 산업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특별시 추진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에너지산업협회는 에너지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15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광주에 본사를 둔 티디엘의 김우진 대표가 협회장을 맡고 있다. 티디엘은 전고체 배터리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등을 제조하고 있다.

중진공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호남연수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투·융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연수,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에너지 전·후방 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 육성,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우주 중진공 광주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에너지 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보스턴다이나믹스가 18일(현지시각) 자사 유튜브 채널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통째로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 “냉장고도 번쩍”...로봇 ‘아틀라스’ AI 진화 공개

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는 19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통째로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물구나무 동작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냉장고를 직접 들어 옮기는 장면을 공개하며, 단순 퍼포먼스를 넘어 산업 현장 투입을 겨냥한 학습 능력을 강조했다.

보스턴다이나믹스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23kg에 달하는 무거운 소형 냉장고를 들어 올리기 위해 무릎을 반쯤 굽힌 뒤 양

팔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들어 올렸다. 냉장고를 들어올린 후에는 균형을 유지하며 뒤에 있던 테이블까지 걸어가갔다.

아틀라스는 이어 상체만 180도로 회전해 냉장고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놨다. 영상은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개발자가 냉장고 문을 열어 음료 캔을 꺼내 마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이번 영상이 강화 학습과 전신 제어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아틀라스가 연구실 수준의 데모를

넘어 변수가 많은 산업 현장에서도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강화학습은 아틀라스가 가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직접 계획과 실행 역량을 갖추고 최적의 동작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아틀라스는 실제 현실에서 23kg의 냉장고뿐만 아니라 최대 45kg의 냉장고까지도 운반하는데 성공했다고 보스턴다이나믹스 측은 설명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냉장고, 미국·유럽서 호평

AI 기반 식재료 관리 등 쇼핑 도우미 역할까지 수행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식재료 관리 기능을 한층 고도화한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미국과 유럽의 테크 매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국내 출시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업그레이드된 ‘AI 비전’ 기능을 통해 식품 종류 수에 제한없이 다양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인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재료 관리부터 맞춤형

레시피 추천까지 지원하며 차별화된 주방 경험을 제공한다.

미국 테크매체 톱스 가이드는 이달 ‘AI 어워드 2026’를 통해 PC·모바일·웨어러블·가전 등 다양한 제품을 종합 평가해 실용성과 완성도를 갖춘 대표 AI 제품들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 홈·가전·보안 분야에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가 이름을 올렸다.

톱스 가이드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삼성 ‘비전 AI’ 기술과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니를 결합해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더욱 정교하게 인식한다”며 “아보카도부터 주키니(애호박), 일반 콜라와 다이어트 콜라의 차이를 구분하고, 보관중인 식재료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과 장보기 목록을 제안한다”고 소개했다.

영국 테크매체 T3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 도움이 되는 주방용품 9종을 선정하며, 대형 가전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포함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